

✓ 이런 직업도 있어요

이 코너에서는 미래유망직업들 중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직업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합니다.

[1] 바이오에너지생산 시스템기술자

바이오에너지는 말 그대로 생물체로부터 유래하는 에너지입니다. 바이오에너지생산시스템기술자는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가축의 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근무조건 및 직업전망

바이오에너지생산시스템기술자는 주로 공채를 통해 정부연구소,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회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연구 및 행정업무나 실험 등을 하게 되며, 현장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출장이 잦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관련 전공자가 적은 편이고 관련 산업이 활발하지 않으나, 바이오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요와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한 적성 및 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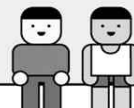
주로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을 운영하므로 생물이나 화학의 기초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생활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나 오수, 분뇨 같은 것들이 모두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평소 염두에 두면서 생명공학, 화학공학에 관심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R코드



출처 : 「미래의 직업세계 : 직업편」

✓ 진로고민...어떻게 할까요?



저는 평소에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도 많이 관찰하고 생물분야를 다루는 동아리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장래에 생명공학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생명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고1)

상담 글에 보면 생명공학이라는 말과 생명과학이라는 말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과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입니다. **생명공학**은 인체를 포함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 등 생명체 활동의 기본현상과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인간에게 유익하게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생명과학부**가 자연과학계열로 기초과학적인 생명과학의 지식을 습득하고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의 순수학문을 배우는 반면 **생명공학부**는 공대 계열로 약을 제조한다거나 화장품을 만드는 등 생명체와 관련된 응용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대학교 중에는 생명공학부와 생명과학부가 모두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선발전형도 다양하므로 우선 희망하는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와 맞는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아직 1학년이니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탐색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탄탄하게 다져가길 바랄게요.

QR코드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커리어넷 상담사례)

□ 드림레터를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찾아보는 방법

☞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교육자료 → ‘드림레터’ 검색 ☞ 스마트폰 앱 ‘클래스팅’ → ‘미래직업찾기’ 검색 → 클래스박스

✓ 다양한 직업경로 이야기⑥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민영 푸드포체인지 대표

■ 통계학과에 갔지만 푸드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도전하다

민영 씨는 수학을 잘해서 통계학과에 갔지만 정작 관련 직업을 택하자니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나의 흥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평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주고 같이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떠올랐다. 마침 푸드스타일리스트가 우리나라에 막 소개되었을 때라 이와 관련한 공부와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이 민영 씨의 성격과도 조금 맞지 않았다. 어떤 것에 흥미가 있더라도 실제로 각각의 직업에 맞는 적성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음식에 관한 다양한 직업들을 탐색하고, 슬로푸드를 알게 되다

음식 관련 직업들 중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었다. 우선 다양한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자 미국으로 가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후 외식업체에 취직을 하고 즐겁게 일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 보다 건강한 음식 문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슬로푸드라는,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자연에 순응하며 자란 무공해 먹을거리를 자연적인 숙성이나 발효과정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먹자는 운동을 알게 되었다. 마침 남양주시에 슬로푸드 팀이 생겨 그 곳에서도 2년 동안 일했다.

■ 건강한 먹거리를 창출하는 '푸드케이터'가 되어 마침내 행복한 직업인이 되다

다양한 직업을 두루 거친 민영 씨는 마침내 그동안 쌓아온 음식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푸드포체인지는 '변화를 위한 음식'이라는 뜻으로 식생활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캠페인과 전문 교육을 통해 바른 식문화를 전파한다. 또 먹거리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푸드(음식)와 에듀케이터(교육자)를 합성한 '푸드케이터'라는 직업도 처음 소개했다.

민영씨는 사람들이 먹을거리 교육을 듣고 건강한 식생활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식생활이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도 사회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창직 분야(2013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체험활동소개

지역	경기	대전	전국
명칭	마토예술제 2014	솔로몬로파크 법치세상 아카데미	제2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내용	학생, 아마추어 모두 참여하는 공연, 먹을거리 판매 등	합리적인 법의식 고취	전 지극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창업 아이디어 공모
일시	6.28(토)	연중 화-일요일 10시/13시/15시	7월 18일(금) 15시 접수 마감
장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대전 유성구 솔로몬로파크	-
문의	031-652-2996	042-863-3165	02-559-3963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사이트	paengseongartcamp.tistory.com	www.lawedupark.go.kr	https://www.creativekorea.or.kr
QR코드			

✓ 알림

팟캐스트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이벤트 - 진로관련 사연 보내고 상품권 받자!

- 소개 : 진로 관련 사연을 접수, 채택을 통해 상품 증정 및 수요일 진로고민 코너에 소개.
- 대상 : 청취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누구나
- 내용 : 진로와 관련된 고민 혹은 에피소드
- 상품 : 문화상품권
- 기간 : 5월 19일(월)~상품 소진 시까지
- 방법 : e-mail 송부 jinrorecipes@gmail.com
- 청취방법
 - PC : 팟빵 웹사이트→'진로레시피' 검색 www.podbbang.com/ch/7445
 - 스마트폰 : 팟빵 앱→진로레시피 검색

QR코드를 통해서
팟빵 앱(APP)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